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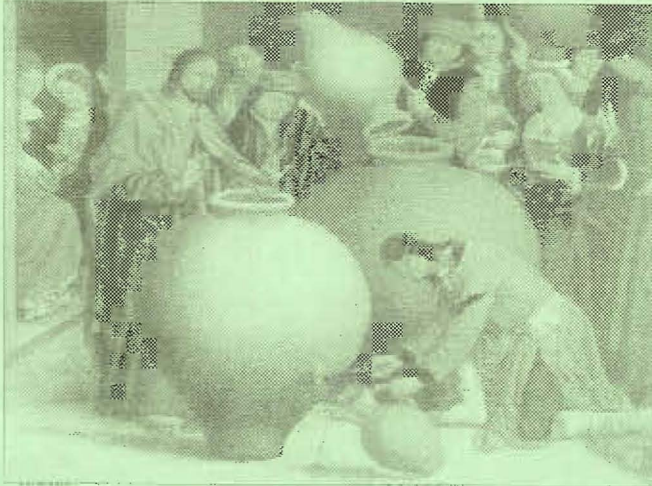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주일
제33권 8호(다해) 2013.1.20

[묵상]



기적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

갈릴래아 카나에서의 첫 표징,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니
이 신기한 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됨은
기적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낸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이고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이 표징이 되니
예수님의 신원을 세상에 드러내는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

음식 준비를 책임 맡은 이는
혼인 잔치에 술이 떨어질까 걱정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자체가
더 걱정임을 깨닫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고도
누구의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어딘지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닮지 않았는가!

신랑 신부의 행복은
물이 술로 변환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을 혼인 잔치에 모셨음에 있기에
우리의 행복도 그분들을 초대함에 있고
그분들로 인해 행복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징이 아닐까!

-框-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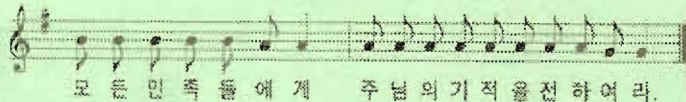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김병도 프란치스코 몬시뇰, 김낙기 바오로, 김현실 아네스, 이근모 마리오, 이종원 베드로 & 이린다 아네스 가정
주 일	(연)이종희 요셉, 이경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전시웅 요한, 김봉선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필수, 지정남 모니카
낮 미사	(생)이윤조 클라라, 유명련 마리아, 이원영 로즈매리 & 이원재 베드로, 이명순 크리스티나, 장정진 베로니카 & 정정연 베네딕타 & 김현정 헬레나 & 진영선 크리스티나, 이용식 베드로 & 이복임 엘리사벳 가정, ME가정, 구마리아네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2,1-5

화답송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주님께 드러라,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입니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2,4-1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복 음 요한(John) 2,1-11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주찬양합니다	241	182
봉헌	나를 받으옵소서	270	265
성체	401	287	290
파견	찬양하세	105	20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말씀과 성소들

가) 하느님 말씀과 성직자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시고(요한 1,14) “진리”이시므로(요한 14,6),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깊은 의미로는 “이들을 저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저에게 결합시켜 주십시오. 이들을 제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새로운 계약의 사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제들은 이러한 사실을 언제나 점점 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81). 사제직의 예비 단계로서만이 아니라 영구적인 봉사로서 부제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삶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종신 부제 양성 지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제의 신학적 정체성으로부터 그의 고유한 영성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영성은 본질적으로 봉사의 영성으로 제시됩니다. 그 탁월한 본보기는, 인간의 선의를 위하여 온전히 하느님께 봉사하며 사셨던 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제 직무의 여러 차원들에서 “부제 영성의 특징적 요소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부제는 자신이 선포하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살아가는 권위 있는 선포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제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공부와 기도를 통하여 신앙으로 성경을 읽는 데에서 양분을 얻기를 권고합니다. 그들은 “성경과 그 올바른 해석을, 성경과 전승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특히 설교와 교리 교육과 사목 활동 전반에서 성경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 하느님 말씀과 수품 후보자

82).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직무 사제직 후보자의 영성 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사제직 후보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그들의 신학적 양성의 영혼이 되도록 할 것이며, 주석과 신학과 영성과 사명 사이의 떼어 수 없는 상호 관계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 사제직 지망자들은 특히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로써 하느님의 말씀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부름 받고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부터 성소 자체가 양육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새 신랑님, 여기 물 더 있어요!

차분한 연중시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났지만 전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성탄 시기의 여운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되신 당신 아들을 통해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주님 공현 대축일), 참회하는 죄인의 모습으로(주님 세례 축일), 그리고 오늘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함께 벌이게 될 영원한 혼인 잔치의 참된 주인공의 모습으로(카나 혼인 잔치) 당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눈치채신 성모님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성모님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이 그저 오지랖 넓은 여느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해입니다. 정작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왔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요한 19,25-27) 성모님의 말씀은, 이집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파라오가 빵을 달라고 부르짖던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창 41,55)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모님에게서 여왕의 힘이 느껴지지 않지요?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그 집에 있던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다 채워진 후에는 그 물을 과방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100리터쯤 들어가는 물독 여섯이 모두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으나 잔치는 이제 얼마든지 흥겹게 계속될 것입니다. 카나의 기적은 어

머니의 청에 못 이겨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포도주의 기적은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요한 6,1-15)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때’(요한 17,1)가 오면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이렇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나 혼인 잔치의 신랑은 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잔치를 망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이 영원히 벌이게 될 하늘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듯이(요한 3,28 참조), 하늘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새신랑이신 예수님은 카나의 기적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술’을 넘치도록 준비하여 영원한 잔치를 벌이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즐거운 혼인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들은 모두 하느님 앞에 ‘물’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처럼 밋밋한 우리를 향기롭고 맛있는 ‘술’로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하찮은 것이라 해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주님의 혼인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하고,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천상의 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국 요셉 신부 /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HAPPY New Year!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체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터	전하현 마리아
체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홈피 참여행사 '새해맞이 나의 신앙다짐' 5행시 공모**
 - 공모시기 : 1월31일까지
 - 5행시 각첫글자(주제) : 백 · 삼 · 위 · 성 · 당
 - 공모방법 **백삼위성당 홈페이지(www.103skcc.org)**에 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리십시오.
 - 상품 : 1등 전기밥솥, 2등 고급핸드백, 3등 커피세트
 - 시상 : 사목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2월3일 발표
 - * 문의 : 안재만 다니엘 홍보분과차장 ☎(310)972-0239

-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오는 2월2일(토)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27일(주일)까지 성물부 김달래나 또는 사무실
 - 봉헌미사 : 2월2일(토) 오후 7시

- ◆ **요셉회 신년회**
 - 일시 : 오늘주일(20일) 11시 미사후 낮12시 30분
 - 장소 : 코지 BBQ (카슨 + 웨스턴)
 - 문의 : 김대우 요셉회장 ☎(310)920-7647
 - * 요셉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울뜨레아 신년회**
 - 일시 : 오늘주일(20일) 11시 미사후 강당(식사제공)
 - 문의 : 이명순 울뜨레아 간사 ☎(310)749-0276
 - * 모든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빈첸시오회 '대하 간장새우' 양골 판매**
 - 일시 : 오늘 주일(20일), 아침, 학생, 낮미사 후
 - 품목 : 신선한 왕새우를 간장에 숙성시킨 '간장 새우장'입니다. 지난 11월 첫판매를 놓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가격 : \$10(1파운드) *문의:배영민 아나스타시아 ☎756-5754

- ◆ **백삼위 성모회표 김치판매**
 - 일시 : 1월26일(토), 27일(주일)
 - 품목 : 포기김치, 총각김치(빈병 모읍니다.)
 - 문의 : 최길숙 요세파나 성모회장 ☎(310)738-4788

- ◆ **2012년(작년) 교무금/성전헌금 봉헌내역 가정통신문 발송**
작년 한해동안 봉헌해주신 교무금과 성전헌금, 감사헌금, 특별목 적헌금 내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이 1월14일부터 교우여러분 각 가정에 우송중입니다. 가정 통신문의 봉헌내역은 인컴택스리턴을 위한 헌금증빙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외의 기부금을 추가하실 분은 사무실 재무담당자에게 신청하십시오. 주소변경으로 받지 못한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 **성령기도회 봉사자 피정**
 - 일시 : 2월1일(금) 오후 4시~3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드폴 피정센터(1105 Bluff Rd. Montebello, 90640)
 - 강사 :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미리내 수도회)
 - 대상 : 기초성령세미나를 참가했던 교우는 모두 가능
 - 참가비 : \$100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 **주일학교 복사단 모임**
 - 일시 : 2월2일(토) 오후 4시
 - 장소 : 성전
 - 아이들이 연습하는 동안 수녀님께서 학부모임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자하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 모집**
성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 대상 :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교우
 - 문의 : 지휘자 민원희 안나 ☎(310)634-9631

- ◆ **한국어를 배우고싶은 어른들을 초대합니다.**
 - 대상 : 한국어가 서툴거나 못하시는 학부모 및 일반 신자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본당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교장 ☎(310)464-7490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20일(주일) : 토런스 남1반(소고기무국 \$3)
주일학교 수업없음(마틴루터킹Jr.기념일)
 - 1월27일(주일) : 토런스 북구역(양지머리국밥 \$3)
주일학교(12학년 스파게티)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미순	김대우	김병학	김양금	김찬구	김충섭
김찬구	김충섭	김형순	노혜숙	민형기	박완철	박인식
박인식	송재훈	안태갑	오명섭	오일순	원건희	안태갑
유영균	이소영	이일길	이태옥	이현주	임 순	주대중
주대중	최기호	최미열	최순옥	최의수	홍광선	최기호
송마이클						최미열
						합계 : \$1,565
주일미사헌금: \$3,116		구유예물: \$40		한남체인 도네이션: \$460		

공지사항

◆ 주일학교 Youth Group 첫모임

외부활동 그룹인 Youth Group이 첫모임을 갖습니다. Life Teen, World Youth Day와 같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와 활동을 통해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0일) 학생미사후 교사실
- 대상 : 9~12학년 *문의 : 황 그레고리오 ☎(424)903-6637

◆ 10학년 전진교리반 학부모 모임

- 일시 : 1월27일(주일) 수업시간중
- 내용 : 성체성사, 대부도선정, 2학기 스케줄 관련등
- 문의 : 빈센트 신 전진교리교사 ☎(310)744-5878

◆ 주일학교 앙상블 창단 및 단원 모집

- 대상 : 5학년~12학년
- 접수 : 전화 또는 e메일 pius103ss@gmail.com
- 오디션 : 1월27일(주일) 낮 12시, 오후 3시 각 수업후
- 장소 : 주일학교 교사실(음악교사 크리스티나 진)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213-258-8665)

◆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기간 : 2월1일(금)~3월24일(주일)까지
- 제목 : 마태오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3월31일)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2월첫주부터 수업

- 대상 : 현재 8학년~11학년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2층) 상담 및 반 배정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중 :
 - * 등록금 : 첫째아이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부터 무료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교장 ☎(310)464-7490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Deposit \$40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40명(인원제한)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4학기 강의 안내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 2'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2013년 2월8,9,10일(금토일 저녁시간)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성당(2625 S. Vermont Ave.)
- 대상 : 신자 및 일반인 모두 환영 * 수강료 : \$50
- 교재 : 비참과 자비의 만남(송봉모 신부 저)
- 등록문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소공동체 새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오신재 매히털다 213-675-0498 1/11(금) 오후 7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12(토) 오후 6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18(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이진향 아네스 989-0366 1/19(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심재은 클레멘스 999-5808 1/12(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유선희 로사 710-8416 1/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1/18(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안혜진 세레나 634-6923 1/10(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999-1448 1/12(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쥘마 818-640-3656	이근모 마리오 518-6142 1/12(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재은 베드로 377-0345 1/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1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성미선 리디아 944-4577 1/12(토) 오후 5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8(화) 오전 10시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1월 사목회	오후 1시
--------	-------

201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담화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부름 받은 교우 여러분,
2013년 한해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뜻 깊은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한국은 여성 대통령을 맞이했고, 민생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쇄신의 변화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지난해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2012년 10월24일~2013년 11월24일)의 취지를 살려 신앙인들의 마음 안에 뿌리내린 세속화와 상대주의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 속에서 맞이한 그리스도인 일치기 도주간(1월18일~25일)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신앙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미카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카 6,6-8)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세속적 가치가 영적 가치들보다 우선시되고, 종교적 삶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만족으로 퇴락하는 형태의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미카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호소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며,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과 대화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형태의 제도적 모순으로 묶여 있는 이들의 해방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참된 자유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불의한 사회 질서와 하느님 자녀의 품위를 거스르는 크고 작은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른 종교인양 갈라져 분열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 일치’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섰습니다. ‘일치’는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같은 제도 아래서 신앙을 확립화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신앙 공동체들 상호 간에 공통된 신앙 고백과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삶의 대화,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대면하게 되는 신앙의 걸림돌인 사회악에 맞서고, 공동선을 위해 함께 연대하는 실천적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 일치를 염원하는 한국 개신교계는 올 해 전 세계 개신교계를 이끌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제10차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발전된 한국 개신교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생명의 하느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란 주제로 참된 교회 일치가 교리적인 논쟁을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인들과 협력하여 격동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깊은 사랑의 복음 정신을 기초로 삼아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가치질서들을 재발견하길 바랍니다. 분배의 정의와 정치질서의 쇄신,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양심의 회복, 평등한 기회와 권리, 생명과 창조질서의 회복, 혼인과 가정의 사회적 가치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분열이 아닌 일치된 한마음으로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새 복음화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느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길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